

TCFD 보고서



TCFD 권고안

TCFD¹⁾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2015년 G20 국가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간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의 주도로 창설되었습니다.

해당 권고안을 통해 일관성 있게 기후 관련 위험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녹색금융의 투자 의사 결정을 도와주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동시에 기후 및 환경적 충격을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세계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37개 국 약 1,500개 기관이 TCFD 서포터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권고안은 네 가지 요소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지배구조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조직의 지배구조



전략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가 사업, 전략,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



위험 관리

조직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방법



지표 및 감축 목표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 평가 및 관리에 사용되는 지표와 감축 목표



¹⁾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신한금융그룹 TCFD 이행 현황

신한금융그룹은 TCFD 권고안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확대해 왔습니다.

신한은 2018년 9월 국내 최초로 TCFD 지지를 선언한 이후, 2019년에는 국내 최초로 TCFD 보고서 또한 공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TCFD 권고안에 기반하여 동아시아 최초로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Zero Carbon Drive를 선포하였습니다.

1 지배구조

Zero Carbon(탄소중립)을 위한 과학 기반의 정량적 감축 목표 설정 및 체계 구축

이사회
ESG 전략위원회¹⁾
위험관리위원회

CEO
그룹 ESG 추진위원회

전담임원
CSSO(Chief Strategy & Sustainability Officer)
그룹사 ESG CSSO협의회

실무 책임자
그룹 ESG 실무협의회
그룹 리스크 실무협의회

전담부서
지주, 은행, 카드 등
ESG 담당 전담조직 신설

2 전략

금융사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전략 'Zero Carbon Drive'

UNEP FI의 TCFD 이행 2차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

환경/사회 리스크 모범기준 운영

그룹 기후변화 대응원칙 수립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 Equator Principles(적도원칙), TCFD, CDP, PRB(책임은행원칙), PSI(책임보험원칙), SBTi(과학기반목표수립), PCAF(탄소회계금융협회), NZBA(탄소중립은행연합)

3 위험 관리

기후 변화 관련 물리 및 전환 리스크, 기회요인 분석 실시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체계 운영

기후변화 관련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 영향 분석

- 12개 환경/사회적 유의영역 선정
- 환경사회적 악영향이 큰 영역에 대해 금융 배제, 조건부지원정책 등 운용
- 대규모 개발 PF에 대해 위험등급 구분하여 영향평가 후 필요 시 금융계약에 저감계획 반영

기후변화 관련 포트폴리오 영향 분석 및 관리 방안 수립

4 지표 및 감축 목표

Zero Carbon Drive 목표

- 감축
2030년까지 내부 탄소배출량 46.2%,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 38.6% (2019년 대비)
 - 상쇄
친환경 금융 실적 2020~2030년 신규누적 30조 원
- 기후변화 위험 요인을 반영한 투자 포트폴리오 모니터링
- 탄소배출량 및 탄소집약도 기준

¹⁾ 2015년 국내 금융사 최초로 신설한 이사회 내 위원회(舊 사회책임경영위원회, 2021년 3월 주주총회 이후 최종 명칭변경 확정 예정)

1 지배구조

신한금융그룹은 2015년에 국내 금융사 최초로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회책임경영위원회(現 ESG 전략위원회)'를 신설하여 ESG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전략을 심의하고 결의해왔습니다.

2019년 금융사 최초로 전 그룹사에 전략과 지속가능 담당임원인 CSSO(Chief Strategy & Sustainability Officer)를 임명하고 ESG 실무 책임자를 지정하여 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전 그룹사 CEO 대상의 'ESG 추진위원회'를 출범하여 기후변화 관련 그룹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상세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전략

신한금융그룹은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Zero'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친환경 금융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Zero Carbon Drive 전략을 통해 고탄소 배출 기업 및 산업에 대한 대출·투자를 관리하고 산업 내 친환경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을 위해 SBTi 방법론을 기반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PCAF(탄소회계 금융협회)가 제시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탄소배출량 측정을 고도화 할 계획입니다.



2 전략

기후변화 기회요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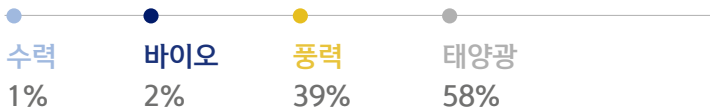
신한금융그룹은 탄소배출에 의존하는 경제활동 생태계 전반에 위치한 친환경 전환으로의 기회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그 중 신한은 실제 탄소 상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 초점을 맞춰 기후변화 대응 기회영역을 발굴하였습니다. 탄소배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통해 탄소상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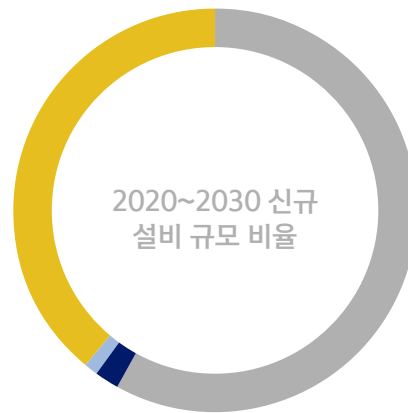
2 전략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에 따른 상쇄 시나리오 분석

향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성을 감안하여 금융지원금액당 탄소배출 상쇄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Zero Carbon Drive의 친환경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배출 상쇄 효과 산정 과정 및 근거



상쇄 재생에너지 기술 선정 근거

억원 당 설비 규모 (MW)	×	연 발전 시간 ¹⁾ (h)	=	연 발전량 (MWh)
연 발전량 (MWh)	×	전력배출계수 ²⁾	=	억원 당 탄소배출량

¹⁾ 일조량 등을 고려한 발전 가능 시간
²⁾ 1MW를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업 중심 친환경 금융 투자 확대

신한금융그룹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친환경 금융 투자 확대를 통해 위험요소를 기회요인으로 전환하여 탄소 상쇄 기여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는 타 사업 대비 사업 규모 및 감축 효과가 크며, 사전 탄소배출 상쇄 효과 추정이 가능합니다.

기회요인 선정 배경

- 태양광, 풍력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전기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 효과가 있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음

사업규모 및 감축 효과

- 사업규모가 크고 금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개발되고 있음
- 에너지효율 사업이나 연료 전환 사업에 비해 투입비용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월등히 높음

감축 효과 추정

- 측정이 가능하고, 탄소 상쇄량과 투자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마련되어 있어 감축 효과 추정이 용이함

3 위험관리

리스크 정의

전환 리스크

글로벌 또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전환 리스크에 노출된 업체에 대한 대출 및 투자금의 손실 증가 또는 투자자산 가치의 하락 등 (은행, 금융투자, 생보사 등)

물리적 리스크

자연재해, 장기적 기후 변화 등에 따라 실물부문의 직·간접적인 물적 피해가 금융부문으로 파급되는 리스크

침수, 산불 등 자연재해에 따른 부동산 등의 담보가치의 하락 (은행, 금융투자, 생명 등), 기후 관련 질환 증가 등에 따른 보험 지급금 규모 증가(생보사) 등

리스크 평가 및 관리

환경/사회적 영향이 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 환경·사회 위험을 평가, 필요시 경감방안을 금융계약에 반영하는 관리 절차를 운영합니다.

환경·사회 리뷰

그룹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에 따라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상 환경·사회 리뷰를 실시하고, 리뷰 체크리스트를 통해 영향을 파악하며 운영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프로젝트 개요 파악
- ② 환경·사회 측면의 위험등급 분류
- ③ 환경·사회 영향 평가 등을 참고하여 환경·사회 리뷰 실시
- ④ 필요 시 경감대책을 금융계약에 반영
- ⑤ 사후 모니터링

적도원칙

2020년 9월 시중은행 최초로 신한은행이 적도원칙에 가입하였습니다. 적도원칙(the Equator Principles)이란, 대형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등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협약으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환경·사회 리스크 및 영향의 정도에 따라 등급 분류 필요 (A ~ C 등급)
- ② (등급에 따라) 환경·사회 영향평가 실시 / 관리시스템 구축 / 액션플랜 수립 / 모니터링 검증
- ③ 금융 약정서 반영 (합의사항 준수 등) / 적도원칙 이행 현황 정기 보고 / 정보 공개

향후 계획

자산 포트폴리오 배출량 관리를 위한 한도 설정 및 관리

여신 및 투자 의사결정에 기후변화를 포함한 ESG 요인 반영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식별 및 관리

Zero Carbon Drive 추진을 위해 탄소 배출량/집약도 등 관련 지표 측정을 통해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축하고자 합니다.

리스크 식별

그룹사별 배출량 정기 모니터링 및 보고

그룹사별 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 탄소집약도, 고탄소배출 섹터/업체 배출량, 익스포저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환경·사회 측면의 유의영역 모니터링

* 12개 유의영역 산업: 광업(중금속 수질오염), 담배(아동노동/보건), 유망어업(해양 생태계 파괴), 인프라(대기오염/토착민이주), 무기·군수(대량살상), 발전(대기오염/방사능), 임업(수질오염/생태계파괴), 작물생산(토양/수질오염), 석유정제(해상오염), 석탄가공(대기오염), 폐수 및 폐기물처리(수질오염), 화학물질 제조(유해물질)

향후 계획

리스크 대시보드를 통한 사전적 알람

모니터링 지표(배출량, 집약도 등)가 큰 폭으로 증가 시 신호등 체계를 통한 사전 알람



기존 리스크 대시보드 내 통합 관리

3 위험관리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기후변화에 따른 그룹 리스크 시나리오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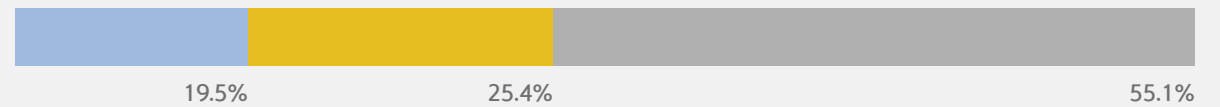
- 고탄소 배출업종의 경우, 미래 탄소가격 상승 등에 따른 비용증가로 전환 리스크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한금융그룹은 S&P Trucost와 함께 리스크 시나리오를 분석함
- 미래 탄소 가격 시나리오¹⁾를 감안한 2019년 기준 그룹 포트폴리오 내 업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탄소비용은 1.16조원 수준(2030년)이며, 추가 탄소비용을 감안하면 해당 업체들의 EBITDA 마진²⁾이 하락할 것으로 시나리오 분석 결과 알 수 있었음
- 특히, 주요 고탄소 업종 내 업체가 현수준의 탄소배출량을 유지할 경우 상당한 업체가 마진축소 등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

Trucost
ESG Analysis
S&P Global

2030년 주요 고탄소 배출업종의 탄소비용 영향 시나리오

- 추가 탄소비용이 마진 대비 10% 이내
- 추가 탄소비용이 마진 대비 10% 초과
- 추가 탄소비용에 따라 마진이 마이너스로 전환

유틸리티



소재



에너지



¹⁾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의 예상 가격을 활용하여 Trucost에서 시뮬레이션 (2°C 시나리오에 기반)

²⁾ 매출액 대비 EBITDA 비율

3 위험관리

리스크 평가 및 관리 과정 중 환경·사회 리뷰 및 계약 반영 사례

○○ SRF¹⁾ 발전사업 사례

개요

전라남도 **군 일원에 SRF 생산설비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자체 생산한 SRF와 외부조달한 SRF로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프로젝트

환경 이슈

2019년 하반기 본 사업의 금융자문을 주선하였으며 프로젝트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B등급으로 분류함

환경·사회 리뷰 의견

- 위험정의
폐기물 처리시설로 대기, 토양, 수질 등의 악영향을 미치는 환경사회 이슈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
- 저감대책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장 운영
- 환경·사회 이슈
본 사업의 관리운영 업체에 법령준수 및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상 운영하도록 별도의 운영책임확약서 작성 및 사업계약에 반영



환경·사회 리뷰 의견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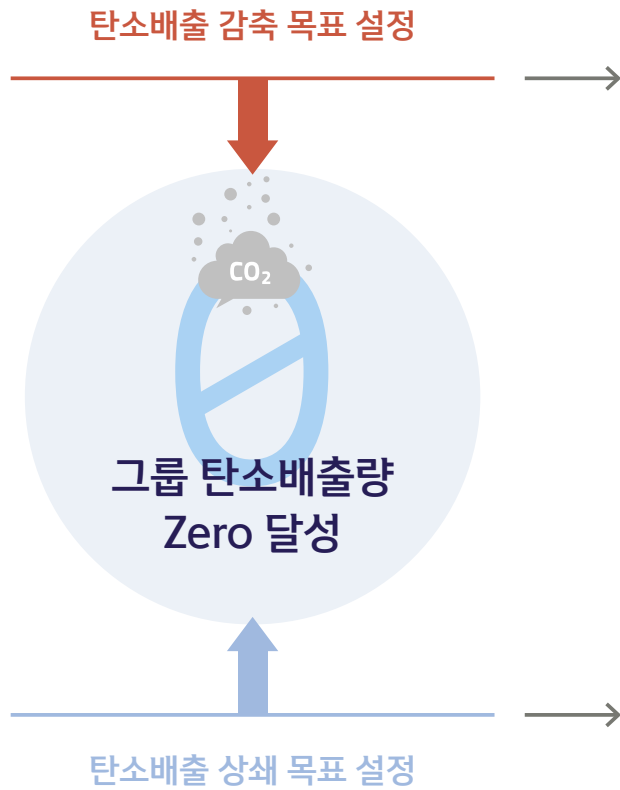
- 진행경과
2020년 2월 ***, *** 두 회사가 본 사업의 EPC/O&M 수급인으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공사 진행중임
- 수급인의 프로젝트 관리의무 부과 (아래와 같이 계약상 환경관련 조건 반영)

수급인들의 계약상 이행의무 사항

- 준공에 필요한 인허가의 취득 및 관련 대관 업무
- 품질 관리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보건, 안전 및 환경계획(HSE Plan)의 수립, 준수 및 그에 따른 관리업무의 수행

¹⁾ SRF(Solid Refuse Fuel): 폐기물 고형 연료, 가연성 쓰레기 등을 선별, 파쇄 및 건조한 화석연료의 대체연료

4 지표 및 감축 목표



그룹 탄소배출량 관리

파리기후협약(2°C 시나리오) 기반의 과학적 틀을 활용한 감축 목표 수립 (SBTi¹⁾ 1.5°C 및 SBTi SDA²⁾ 2°C 시나리오)

내부 탄소 배출량

4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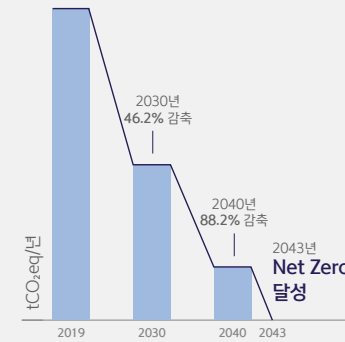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

38.6%

(2019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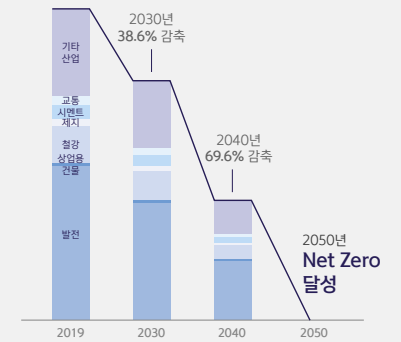
내부 탄소배출량

SBTi 1.5°C 시나리오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

SBTi 2°C 시나리오



¹⁾ SBTi(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과학적 시나리오(파리기후협약)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
²⁾ SBTi SDA(Sectoral Decarbonization Approach), 섹터별 탈탄소 접근법: 금융자산의 탄소배출량을 산업별(발전/부동산/철강/시멘트 등)로 분류하여, 산업별 시나리오에 따라 감축 목표 산정

친환경 자산 규모 확대

- 친환경 新성장동력 발굴
 - 친환경 新기술 투자/기업 발굴
 - 재생에너지 Equity 투자 확대 등
- K-Taxonomy 반영한 실적 관리 예정

친환경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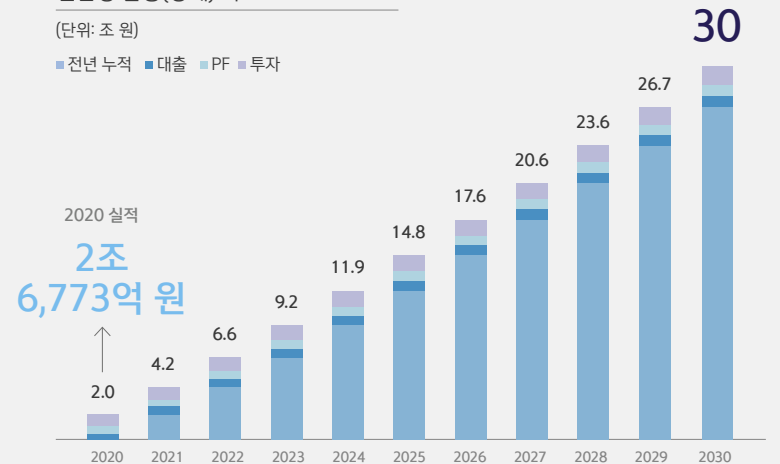
30조 원

(2020년~2030년 신규 누적)

친환경 금융(상쇄) 목표

(단위: 조 원)

■ 전년 누적 ■ 대출 ■ PF ■ 투자



* 상쇄 목표는 태양광/풍력 기반 재생에너지 PF 비중이며, 감축 노력 없이 탄소배출량을 상쇄 가능한 수준으로 추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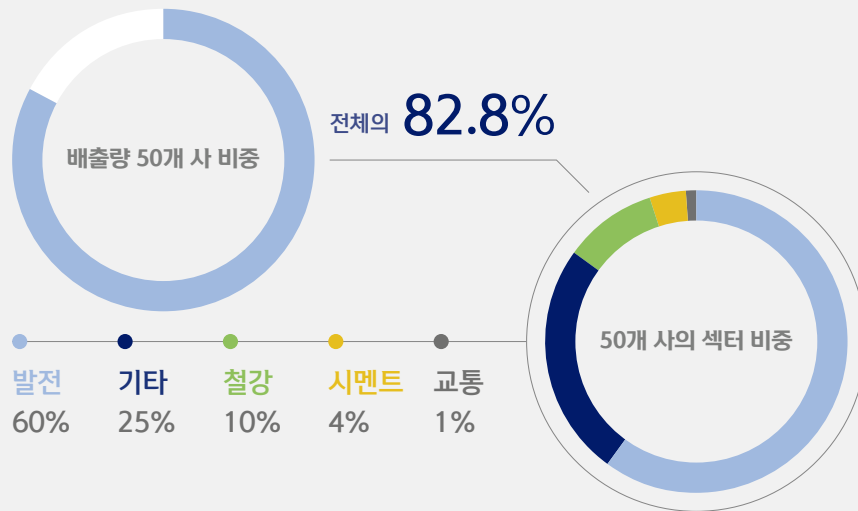
4 지표 및 감축 목표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 관리 방안

신한금융그룹은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업의 산업 섹터별 탄소배출량과 탄소집약도 분석을 기반으로 관리합니다.

고 탄소배출 기업의 탄소배출량 비중 분석

- 탄소배출량 상위 50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배출량 대비 82.8%이며, 그 중 발전 섹터가 60%를 차지
- 배출량 상위 10개 기업의 총 배출량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53.9%



탄소집약도¹⁾ 상위 기업의 효율성

- 탄소집약도 상위 10개 / 상위 50개 기업 중 '시멘트, 발전' 섹터 기업 다수
- 집약도 상위 기업의 탄소집약도는 총 평균 대비 15~25배²⁾ 수준

탄소 집약도 현황

(단위: tCO₂eq/억원)

Top 10



Top 50



Total



0 200 400 600

탄소배출량/탄소집약도 상위 기업 및 발전 섹터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그룹 포트폴리오 탄소 배출량의 관리 효과 제고

탄소배출 및 탄소집약도 상위 기업의 친환경경영 전환 기회 발굴

그룹사별 탄소집약도를 주요 지표로 관리하고, 여신 및 투자이사결정 시 주요 검토 항목으로 반영

¹⁾ 생산량, 매출, 투자 등 단위당 탄소배출량을 의미 (여기서는 투자 1억원당 포트폴리오 배출량을 의미)

²⁾ 시멘트 섹터의 경우, 신한 자산 포트폴리오 내 발전 외 그룹의 주요 섹터로 관리